



# 일짱 공부 짱

교과부 재직자 특별전형 결과발표

## 꿈, 날개를 달다!

공주대·건국대·중앙대 등 3개교 시행...합격생 만족도 높아

◆ 2010학년도 재직자 특별전형 시행 대학 및 모집요강

학교명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중앙대	인문계열	글로벌지식학부(서울)	85
		글로벌지식학부(안성)	60
		계	145
건국대	인문계열	자율전공학부(신산업융합인재양성과정)	60
공주대	이공계열	기계자동차공학과	30
		식물자원학과	30
		계	60

근무경력과 학업계획서만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지난해 10월 신설된 '전문계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을 도입한 공주대(국립), 중앙대(서울, 안성), 건국대(서울) 등 3개 대학이 2010학년도 합격자를 선발함에 따라 이 제도의 첫 시행결과를 종합발표했다.

재직자 특별전형을 시행한 학교들은 응시생들이 제출한 학업계획서·재직경력·고교생활기록부 등을 반영해 신입생을 선발했다. 일부 대학은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도입해 신입생을 선발하기도 했다.

대학들은 신입생 선발에 있어 전문가로서의 성장목표, 끊임없는 자기계발 의지, 직장 근무실적 등을 합격결정의 주요 기준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행 대학들은 이 전형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이 취업 후 새로운 교육기회를 맞아 그 동안 꿈꾸어 왔던 경력을 쌓고 이를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데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각 대학은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여건을 고려해 학생들이 학업계획을 실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안료했다.

일부 대학은 동문회 등을 통한 멘토링 서비스 등 특별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대학들은 신입생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주중에는 퇴근 후 야간시간을 활용하고 주말수업과 온라인학습 등을 적극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올해 입시에서는 시행 대학이 3개에 불과하지만, 더 많은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생이 입학 후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확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운영과정을 점검해 제도 본래의 취지대로 재직자 학생들이 불편없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불편사항의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교과부가 발표한 재직자 특별전형 합격 사례이다.

▲ 건국대(신산업융합인재양성과정) 합격생 이철호 씨

어려서부터 전자기, 탱크, 로봇 모형 등과 같은 조립식 장난감 만들기를 유난히 좋아했던 이철호 씨는 고교를 진학하면서 인문계고 진학을 원하시는 부모님을 설득해 본인의 적성에 맞는 전문계고인 동양공업고등학교 기계과에 입학해 각종 자격증을 취득했다.

교과부, 국립대 중심 확대 노력  
예산 등 정부지원 아쉬워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이뤄져야

졸업 후에는 공군에 지원해 기 관정비병으로 병역을 마친 후 경력을 인정받아 기아자동차사에 입사했다.

세계 최고의 SUV 차량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13년째 근무하고 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실무에서는 주변 모두에게 인정받아왔지만 체계적인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의 길을 걷고자하는 열망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졌다.

그러던 중 전문계고를 졸업한 직장근무 경력 3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계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이 올해 처음 시행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서울 건국대학교 자율전공학부 신산업융합인재 양성과정에 지원해 합격했다.

특히 수업이 평일 야간과 주말 그리고 온라인 강좌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도 직장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강의가 이루어진다는 점과 멘토링 등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기대에 한 하루하루

를 보내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아들과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딸을 둔 1남1녀의 가정인 그는 자녀들에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가정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3월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2월20일 입학식에는 고등학교 진학 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준 부모님을 모시고 자랑스러운 아들의 모습을 보여드릴 계획이다.

▲ 중앙대(글로벌지식학부) 합격생 김근별 씨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되신 어머니와 어려운 가정생활 중에서도 근면, 성실을 잃지 않고 전문계고(영남공과 전기과)로 진학했다.

전기와 전자분야에 흥미를 가지고 우수한 학업성적을 보이던 중 1997년 2월 졸업 후 실생활을 했던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삼성전자에서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트랜지스터 구동원리, IC(집적회로) 구성학을 바탕으로 반도체 및 설비 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다.

6시그마 등 생산 및 업무효율을 위한 100건이 넘는 개선활동을 진행하고 4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NRD 설비기술그룹 대리 13년째 근무하고 있는 김씨는 직장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생산경영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목표로 경영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중앙대학교 글로벌지식학부에 도전당당히 합격했다.

▲ 공주대(기계자동차공학과) 합격생 김동훈 씨

김동훈씨는 전문계고 졸업 후 집안 사정으로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결정해야 했다.

타고난 성실함으로 중소기업의 과장까지 올랐지만, 중학교때부터 꿈꾸어 왔던 자동차에 대한 열망을 버릴 수가 없었다.

자동차공학과에 입학하고 싶었지만,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던 중 대학의 소개로 재직자 특별전형을 알게 됐고 공주대 기계자동차공학과에 합격하게 됐다.

특히 직장인을 위한 학과로서 야간과 주말에 수업을 진행한다는 데에 큰 희망을 갖고 있다.

양원식 기자 yws@eduyonhap.com



◆ 재직자들의 학업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재직자 특별전형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 영어독서를 게임하듯 즐겁게~

리딩랩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영어독서프로그램 "전국 초등학교에서 인기"



ReadingLAB은 ERP (개발적 디독을 목적으로 독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영어 독서 촉진 프로그램)를 개발, 실시하는 영어 전문도서관입니다.

리딩랩은 독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영어독서촉진 프로그램인

ERP(Extensive Reading Program)를 통해 개발적인 영어독서를 하게 함으로써 영어실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미국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한 레벨 테스트를 실시, 학생의 레벨에 맞는 책을 선정해주고 책을 읽은 후에는 북테스트와 단어테스트를 통해 이해력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각 책마다 일정 포인트가 지정되어 있어 북테스트, 단어테스트를 80점 이상 통과한 학생들에게 포인트를 지급함으로써 영어도서를 게임하듯 즐겁게 계속 지속시켜 줍니다. 영어에 흥미가 없는 학생도 자기 레벨에 맞는 책을 꾸준히 읽으면서 영어에 친숙하게 되고 자연히 영어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책의 레벨은 미국 초등학교 1학년에서 8학년 사이로 글과 그림의 비유, 문장길이, 어휘의 수, 책 내용 등을 기준으로 난이도를 분석해 지정하고 있습니다.



신청및상담문의: 031) 714 - 187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어항동 분당테크노파크 C동 710 (주)에듀랩



◆ 중앙대학교는 그동안 다양한 재직자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